

# 강진군 금고, 농협 60년 독점 깨지나

### 군, 단수·복수금고 채택 예고

### 광주은행 있는 지역 중 단수 유일

### 18일 심의위원회서 최종 확정

강진군의 예산을 관리할 금고 선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강진군에서 단수와 복수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으면서 복수금고 채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금고는 보통 3년 계약으로 체결된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금고로 운영했는데 강진군이 최근 공고를 통해 금고의 수를 2개 이하로 결정하면서 단수와 복수(2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는 오는 18일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진에서는 그동안 농협이 1961년부터 지금까지 60년간 단수 금고로서 장기독점 특혜를 누려왔지만 군이 복수금고 채택을 예고하면서 독점적 지위에 '도전'을 받게 됐다. 복수금고의 수혜는 1987년 강진지점이 들어선 이후 34년 동안 지역의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은 광주은행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금고 선정 상황을 보면 강진, 곡성, 구례, 진도 등 4곳이 단수금고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곳은 복수금고를 채택하고 있다. 복수금고 18곳 중 17곳은 1금고와 NH농협은행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 16곳, 국민은행 1곳이다. 목포시만 광주은행이 1금고, NH농협은행이 2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단수를 채택하고 있는 4곳 중 강진군을 제외한 3곳은 광주은행 지점이 없기 때문에 금고 선정 자격기준을 갖춘 기관이 농협밖에 없었다. 하

지만 강진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광주은행 강진지점이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단수금고를 운영해왔다.

강진군은 단수금고를 채택하면서 지난해 기준 일반회계 1062억원, 특별회계 52억원, 세비세출외 현금 20억원, 기금 410억원 등 4가지 예산 총 1544억원을 농협이 맡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복수금고가 되면 일반회계는 1금고가 관리하고 나머지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2금고와 나누게 된다. 이에 따라 2금고에 배당 가능한 예산은 최고 48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진군 김보미 의원은 "공정한 경쟁이 없는 독점은 특혜로 변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위해 행안부 예규 뿐만 아니라 금융위 등의 자료를 검토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농특산물 판로 개척 내 손으로

### 장성군 '농튜버' 교육생 모집

장성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업인의 인터넷 활용 역량을 강화해 '농튜버'(농업인+유튜버)를 양성해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교육 과정은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활용 교육(1차)과 라이브 쇼핑 참여를 위한 활용 교육(2차)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은 본격 농튜버 양성이 목적이다.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영상 촬영과 제작, 유튜브 활용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차 교육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활용 방법을 알려준다. 라이브 쇼핑 입점부터 트렌드 분석에 이르기까지 실용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 신청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이다.

교육 대상에 선정되면 오는 7월6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 총 교육 과정의 80% 이상 참여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고 정보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슈퍼푸드 장흥 블루베리 본격 출하 초여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슈퍼푸드인 장흥 블루베리 2014년부터 대표 작목으로 선정해 조기수확 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 농자재 투입, 수확 후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친환경 블루베리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대숲맑은 담양 쌀' 서울 노원구 학교급식 선정

### 7월부터 2년간 93개교에 공급

담양군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이 올해 서울 노원구 학생들의 밥상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최근 노원구 학교급식용 쌀로 최종 선정돼 7월부터 2년간 93개 초·중·고에 연간 100여t을 공급한다.

공급업체는 서류심사(20%), 현지실사평가(50%), 품평회 및 시식평가(30%)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을 포함해 5개소가 선정됐다.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 쌀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600여t의 쌀을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17개 자치구를 비롯한 제주도, 광주시 등에 학교급식 쌀로 선정돼 연간 1000여t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8개 농협이 참여해 설립된 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을 주체로 분산면에서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통합미곡종합처리장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담양 쌀의 경쟁력이 더



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의 쌀 가공판매로 전국 최고 브랜드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화순군 관광지 10곳에 무인계수 시스템

### 동구리 호수공원 등 구축 공사

화순군이 방문객이 많은 동구리 호수공원, 너릿재 옛길,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 10곳에서 무인계수 시스템(피플 카운터) 구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객 수치를 종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승인하고 공표하는 정부승인 통계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사전에 약제 운영, 입장권, 무인계수시스템 설치 등 객관적으로 입장객 수 집계 가능한 방식만 인정되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최종 승인받은 관광지 31곳의 통계 수치를 인정받고 있고, 더 많은 관광지 방문객을 파악하기 위해 무인계수기 설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군은 무인계수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고 이를 관광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인계수 시스템 설치를 확보한 관광지 통계 기본 자료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함평 자동차극장 관람대수 5000대 돌파

### 개장 4개월만에 입장료 수입 1억

함평군은 지난 1월 말 개장한 자동차극장이 4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 차량 대수 5000대와 입장료 수입 1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누적 관람 차량은 5101대를 기록 중이며 이에 따른 자동차극장 입장료 수입도 1억원을 넘어섰다.

함평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블록버스터급 영화 개봉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대형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개봉하면 더 많은 관람객이 자

동차극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5000번째 차량 방문객 행운은 나주시에서 방문한 A씨가 안았다. A씨에게는 깜짝 축하이벤트로 꽃다발과 상품이 전달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 함평자동차극장이 워드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비대면 문화 향유 시설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극장은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두 차례씩 최신 개봉작을 상영하고 있다.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매도 가능하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될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